



## 생명 선택의 길

문 / 청연

[밍후이왕] 2 차 대전 때, 유럽동맹군의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艾森豪威尔) 최고사령관은 아주 추운 어느 날 저녁, 차를 타고 본부로 가고 있었다. 도중에 한 늙은 부부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추위에 쪼글쪼글 얼어 있었다. 그는 기사에게 차를 멈추고 그 노인들에게 사연을 물어 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의 참모가 “경찰국에 연락하여 그들을 돕게 하고 우리는 본부로 가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장군은 차를 세우고 하고 “경찰국에서 차를 파견하기를 기다리게 한다면 아마 이 두 노인은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요.” 라고 말하면서 두 노인을 그들 차에 태웠다. 원래 두 노인은 아들 집으로 가던 중 차가 고장이 나 멈춰 서게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 던 참이었다. 그들은 장군의 도움에 몹시 고마워했다. 장군은 기사에게 먼저 길을 돌아 두 노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본부로 가라고 명령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동맹군은 그날 저녁 독일군의 저격수가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나는 길목에 매복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만일 장군이 그 늙은 부부를 도와주지 않고 원래의 경로대로 갔더라면 아마 불행을 면하지 못 했을 것이다.

이는 아주 분명한 바, 아이젠하워 장군의 선택 행동은 실은 자신을 도운 것이다. 누가 어둠 속에 하늘의 뜻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바로 하늘이, 위험한 환경이나 액운에 직면한 장군에게 내려준 생명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표면에서 보면 그 노부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지만, 사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 그 자신이었던 것이다.

장군에게 재난이 닥칠 때 하늘이 어

려움에 봉착한 그 노부부로 인하여 장군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러나 전제는 장군이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다시 그 추운 저녁으로 돌아가 그 환경에서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옳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1. 장군 일행은 그렇게 추운 밤에 본부로 급히 가고 있었는데,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군기대사가 있었고, 이 노부부를 도와주게 되면 시간을 지체할 수 있었다.

2. 참모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경찰을 부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 장군은 그 노부부를 내버려 둘 수 있는 ‘이유’와 체면이 있었다.

3. 당시의 상황은 추운 밤이고, 그들은 동맹군 본부로 급히 가고 있었다. 만약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더 오랜 시간을 추위에 떨어야 한다. 그러나 장군은 먼 길을 돌아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노부부를 도와 주어야 한다고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좋은 점’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

가령 장군이 아주 현실적이고 냉담한 사람이었다면, 만약 장군에게 양심을 견지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면, 그는 틀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럼 장군과 관련된 일체의 역사는 고쳐 써야 했을 것이니 그는 후에 우리가 알게 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아닐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일체 영예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하지만 장군은 옳게 했다. 그는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하늘은 그를 도와주려 했다. 하지만 사람 자신의 선택도 아주 중요하다.) 그 노부부를 도와주었으므로 하늘의 보호를 받아 그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모든 사람도 구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현 정권 중에서, 선택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진정 현실적인 의의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는 억만의 파룬궁(法輪功)수련생이 납치당하고 혹형을 당하고 억울하게 박해 받고, 심지어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 당하는데 대해……, 현 중공정권의 고위층은 장 씨 집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짓밟는 이런 범죄행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전대미문의 이런 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장쩌민 집단의 끊임없이 사단을 빚어내는 행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계속 박해를 방임하고 묵인할 것인가? 끝까지 당을 보호하며 그와 함께 역사에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뜻에 따라 중공을 해체하고 자신을 구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중국대륙민중들도 ‘당, 단, 대 에서 탈퇴하여 평안을 보장하자’는 선의적인 권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 똑같은 현실적 의미가 있다.◇



### 연변박해소식

#### 연변 도문시 ‘610’은 사람을 매수해 위리신을 납치하다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길림 보도) 2014 년, 길림성 도문시 ‘610’사 무실 짜오카이는 류모를 밀정으로 매수해 파룬궁수련생 위리신(于立新)이 거쳐하고 있는 곳을 찾아내게 한 후 그해 8월 6일에 경찰들을 지휘해 위리신을 납치했다.

소위의 ‘610 사무실’은 중공 장쩌민 무리들이 1999 년 6 월 10 일에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성립한 나치계슈타포와 같은 불법조직이다.

2014 년 여름, 도문시 ‘610’ 사무실 짜오카이와 향상파출소 소장은 도문시의 유희인원 류모에게 달마다 400 원씩 공자를 주겠으니 방법을대여 위리신을 찾아내라고 말했다. 류모는 당시 가슴을 치면서 위씨누나와 저의 누나(파룬궁수련생)는 늘 같이 있으니 이 일은 식은 죽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먹이라고 보증하고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짜오카이는 이 말을 듣고 “일이 성사한 후 우리는 너의 누나를 석방해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흥이 나서 말했다. 이 말에 류모는 바보처럼 웃어대더니 “내가 곧 위 누나를 찾아내겠다”고 큰소리쳤다.

류모는 도처에서 위리신의 소식을 알아보고 위리신이 외지에서 일하는 지점을 알아낸 후 8월 6일 짜오카이가 시공안국국보대대 악경들을 지휘해 연결시킨 식당 주방에 뛰어들어 마침 일하고 있는 위리신을 납치해 도문시 향상파출소에 가두어 놓고 흑형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잔혹한 박해를 당한 위리신은 도문시

병원에 보내졌고, 얼마 후 위리신은 병원에서 탈출했다. ‘610’사무실 짜오카이는 또 밀정을 사주해 위리신과 가족의 전화를 감시하게 한 후 시공안국국보대대 악경들을 지휘해 길림시 위리신의 친척집에 찾아가 재차 위리신을 납치했다.

악인 류모는 믿고 있던 ‘610’ 사무실 짜오카이가 “일이 성사한 후 우리는 너의 누나를 석방해 집에 보내겠다”고 한 승낙이 수포로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결국 누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로 부터 받은 것은 “너의 누나는 시공안국 구치수소에 감금되어 있고, 불법재판에 직면했다. 너의 누나와 위 누나는 모두

‘真, 善, 忍 (쩐, 썬, 런)’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인데 네가 나쁜 놈을 도와 악행을 저질렀으니 좋은 끝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비난뿐이었다.

짜오카이(남, 한족, 37세, 중공당원)는 1998년 6월에 취직했으며 원래는 도문 시위 조직부 전교(电教) 과장이었고 2010년에 도문시 ‘610’사무실 부주임으로 되었다. 그 후 시공안국보대대의 인전원 등 악경들을 지휘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을 납치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차례 세뇌반을 꾸려 많은 사람을 불법판결을 받게 했다. 그중 석현 장청전(张庆军)과 장수센(张淑贤) 두 파룬궁수련생도 잇따라 ‘610’에 납치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살해당했다.

## 독 분유 피해 받은 아이의 기적

(대륙에서 온 소식) 파룬따

파 사부님께서 “한 사람이 연공하면 온 가족이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머니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했기에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 다음은 나에게서 발생한 기적이다.

나는 출생 3개월부터 ‘싼루(三鹿)’ 분유를 먹었다. 아버지는 ‘싼루’ 분유는 국가에서 검사한 분유라 시름 놓고 먹을 수 있다며 다른 상표로 바꾼 적 없이 4살 될 때까지 먹이었다. ‘싼루’ 분유에 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TV에서는 어릴 때부터 ‘싼루’ 분유를 먹었던 영유아들은 모두 병원에 가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부모님은 즉시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잠혈(미세하게 혈뇨가 나옴)’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후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전국 각 큰 병원으로 갔으며 마지막에 전신 마취를 하고 신장 검사를 하기로 했다. 수술 중에 주치의가 천자하다가 신장에 있는 혈관을 찢러 혈관에서 나온 피가 응고된 후 방광에 들어가 소변을 배출할 수 없었다. 의사는 세 번이나 카테터를 꽂았지만 핏덩이에 막혀 꽂을 수 없었다. 소변 볼 때마다 아주 고통스러워서 같은 방에 있던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엄마와 의사들과 함께 억지로 내 몸을 눌러 몸부림치다가 주사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매번 소변은 핏물이었으며 온몸에 땀이 나서



눈물과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다. 엄마는 나를 안고 끊임없이 내 귓가에 파룬궁 사부님의 ‘논어’를 외워주시면서 온밤 자지 못하고 내 부은 배가 좀 낫도록 따뜻한 수건으로 문질러 주셨다. 이렇게 나는 괴로움에 시달려 힘이 전부 빠졌으며 밥 한 수저도 먹지 못하고 24시간 링거를 계속 맞았다.

나는 흐리멍덩하게 며칠 잤는지 모른다. 각 큰 병원에서는 온 몇몇 의사가 진단했지만 모두 내 방광에 있는 핏덩이를 녹일 방법이 없었다. 네 번째 진단을 마친 후 수술로 핏덩이를 꺼내기로 했다. 엄마는 울면서 침대가에 앉아 나를 안고 내 귓가에 대고 “애야, 속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 진선인은 좋다)’를 외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부님의 ‘논어’를 나에게 외워주셨다. 엄마가 집에서 늘 외웠기 때문에 나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논어’를 외울 수 있었다.

내가 혼미 상태에 빠진 지 20일째 되는 날, 나는 갑자기 깨어나 힘없이 “엄마”라고 불렀다. 엄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귀를 내 입가에 댔다. 나는 엄마에게 “나 사부님을 봤어요. 사부님은 나더러 물을 많이 마시어 흑색물질을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알려드렸다.

엄마는 너무 기뻐 아버지에게 즉시 수박을 사오라고 하셨다. 수박을 두 쪽으로 나눴는데 나는 반쪽을 다 먹었다. 당시 며칠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먹은 것이다. 당일 오후 나는 크기가 다양한 핏덩이를 배출했다. 작은 손가락만한 핏덩이와 핏물이 가래통 절반이 넘게 배출됐다. 오후 두 번째 소변을 볼 때 기적이 나타났다. 소변이 아주 맑았으며 핏물이 전혀 없었다.

의사는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빨리 단번에 나을 수 있다니!”라고 말했다. 엄마는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말했다.

퇴원 후 나는 선생님이 내준 작문 마지막 단락에 “나는 아주 힘들었다. 힘이 전혀 없어 천천히 눈을 뜨고 보니 내가 구름 위를 기어 다니고 있었다. 속으로 아주 두려웠다. 내가 천천히 기어서 일어났을 때 고인(高人) 한 분을 보았다. 연꽃 위에 앉아 계셨으며 몸은 황금색 성결한 빛을 뿜었고 수인을 하고 계셨다. 눈을 뜨시고 나에게 ‘애야, 흑색 물질을 없애버리게 물을 많이 마셔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나는 깨어났다.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이다.”라고 썼다.

아버지는 내작문에 쓴 이 단락을 보시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법상 앞에 공손하게 향 3 대를 피우셨다. 나는 파룬따파를 믿어 혜택을 본 아이이다.◇